

제6회 어린이 우유 장학금 글짓기 공모 당선작

한국유가공협회에서는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의 글솜씨 향상을 위해 지난 85년부터 매년 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제6회째인 90년도에는 전국에서 총 2천8백94편이 응모해 새싹회(회장 윤석중 아동문학가)에 심사를 의뢰, 최우수 1편, 우수 2편,佳作 5편, 입선 10편, 장려 30편 등 총48편을 엄선하여 장학금과 상품을 전달했다. 전호에 이어 이번호에는佳作 1편과 입선4편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佳作

고마운 우유

김 원

청주 중앙국민학교2학년 5반

나는 1983년 1월15일 의정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내 생일은 아주 추운 겨울이지요.

지금 나는 2학년이고, 튼튼한 어린이가 되었지만, 내 이세상에 처음 태어났을때는 살이 별로 없이 뼈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입덧이 나서 너무 못

잡수셔서 내가 약하게 태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엄마는, 나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 하고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엄마는 나에게 젖을 먹이려고 했으나 젖이 나오지 않아서 나는 분유를 먹기 시작 했고, 엄마는 매일매일 내가 자라는 모습을 기록부에 적어 놓으셨다고 하십니다.

“고마우신 엄마지요”.

지금도 생각하면 우스운 이 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네살때 유아원에 다녔는데 엄마가 우유병에 우유를 담아서 가방에 넣어 주시면 유아원에 가서 우유병을 꺼내 빨고 다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학교에 다니는 형들이 보고 놀려서 집에 와서 울어버리고 나서는 유아원에 우유병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집에 와서 아무도 안 볼때 우유병을 빨곤 했습니다.

우유병을 빨면, 기분이 좋았던것 같습니다.

내 별명은 꿀돼지, 포동이, 흰둥이 입니다.

사람들은 내 얼굴이 우유빛이라고 하지요.

어려서부터 하얀 우유만 먹고, 자라서 그럴까요?.....

며칠 전엔 엄마가 편찮으셔서 학교갈 시간에 깨워 주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8시면 우유를 가져다 주시는 아저씨가 오셔서 우리집 벨을 눌러 주십니다.

나를 깨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유가 왔으니 가지고 들어 가라는 신호벨인 것이지요.

나는 그 벨 소리에 잠을 깹니다.

허겁지겁 준비를 하고, 학교에 가서 지각은 안했지요.

지금은 학교 급식 우유도 먹고, 집에 배달되는 우유도 먹고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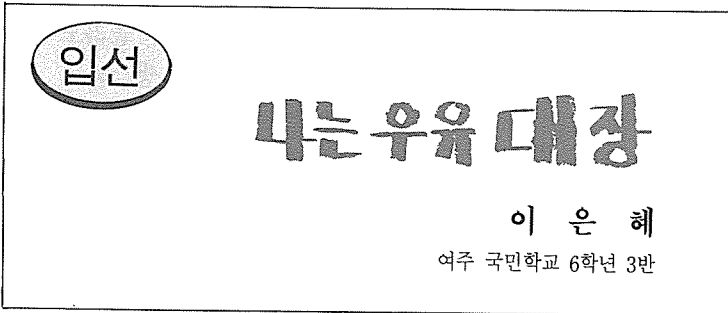
우유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아마 우유가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수 없었

겠지요?

소를 키우시는 아저씨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해야겠습니다.

우유는 나에게 여러가지로 고마움을 가져다 줍니다.



“우유대장 나가신다 길 비켜라!”

“우유대장 나가신다 길 비켜라!”

둘째 시간이 끝나면 우리 4층사는 우유 상자를 들고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며 운동장으로 우유를 타러간다. 나, 윤희, 효정, 승진이는 4층사로 우유대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나는 우유를 무척 좋아한다. 우리가 우유대장이라고 별명이 붙게된 이유는 우리모두 우유를 좋아하고, 가장 큰 이유는우유당번을 맡고있기 때문이다. 한번은 우유를 타리라며 복도에서 큰소리로

“우유대장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하며 외치다가 1반 선생님께 여자가 왜이렇게 목 소리가 크냐고 혼이 난적도

있다. 그때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 당장이라도 우유당번을 그만 하고 싶은 생각도 든다.

오늘은 이상하게 기운이없고 힘이빠진다. 우유를 타러갈때도 처량한 모습으로 발걸음을 간신히 옮겼다.

“우유대장 왜 힘이 빠졌어!”

난 깜짝놀라 눈을 크게 뜨고 옆쪽을 보았다. 효정이가 장난을 한것이였다.

“어휴, 깜짝이야. 간이다 떨어지겠네”.

“은혜야 오늘따라 이상하게 기운이 없어 보인다. 무슨 일이라도 있었니?”

“어 몸이 좀 아파서……”

“몸이 아프다고, 우유대장이 몸이 아파서야 되겠니? 은혜야 힘내고 빨리 약국으로 가

자”.

“약국이라니? 난 괜찮아”.

“아니야 빨리 따라와”.

효정이는 날 약국으로 데려간다고 하며, 이상하게 엉뚱한 곳으로 데려왔다.

“효정아 약국을 간다며 왜 우유타는 데로 왔니?”

“잠깐만 기다려봐 아주 좋은 약이 금방 나올테니까”.

난 효정이가 무슨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가 어리둥절 했다.

“은혜야 받아 이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

“이건 우유잖아”

“우유가 얼마나 좋은약인데, 얼른 시원하게 마셔 한결 기분이 좋을꺼야”

“그래 네말도 맞구나. 빨리 마시고 기운낼께”.

“은혜야 우유대장이 별거 아닌것 갖고 실바람에 휘날리는 가랑잎처럼 시늘시늘해서 되겠니? 너 우유먹고 병나오면 약값 주어야해”.

“꿀꺽꿀꺽 휴, 효정아 네말대로 우유를 먹었더니 힘이 솟는걸. 내가 이까짓것 가지고 기운을 뺄 수없지, 나는 우유대장 이니까”.

“하하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약을 먹고 내 피병은 금세 사라지고 말았다. 우리 4층사는 하늘이 울릴듯한 우렁찬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며 교실로 향했다.

“우유대장 나가신다 길 비

켜라!”

“우유대장 나가신다 길 비

켜라!”



고마운 우유

한 예 경

서울 양전국민학교 6학년 5반

“아빠! 우유 드려요?”

“아니……”

아빠의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 그냥 담배를 드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건, 안되지’ 하고 우유를 권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담배를 아주 많이 피우셨지요.

가래침을 뱉으면 거무티티하고 기관지염을 앓으신 후에는 우리 식구들은 아빠의 담배 끊기를 권했지만 잘 안된다고 하셔서 엄마는 박하 사탕을 사 놓으시고 담배를 피우려 하실 때 사탕 한개를 드렸지만 사탕을 잡수시면 달기 때문에 다시 껌배를 피우시곤 하셔서 엄마는 우유로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우유라면 싫어 하시는데 담배대신 우유 드시는 것은 더욱 싫어 하시기에 담배를 피우고 싶어하실때 엄마는 나와 내동생 까지 모두 우유를 마시게 했습니다.

일요일이면 우린 아빠 덕분(?)에우유를 자주 마셔야 했습니다.

그런 어느날 일요일.

엄마가 외출을 하시며,

“예경아! 아빠 담배 피우고 싶어하시면 알지?”

“네! 알았어요. 잘 할께요” 하며 우리 두 모녀는 눈을 보며 의미있게 웃었습니다.

난 내방에서 보던 책을 아빠계시는 마루로 나와 보면서 아빠를 슬금슬금 쳐다보니 아빠는 이상하시다는 듯이

“예경이 네방에 가서 책보렴”.

“아니예요. 난 여기서 볼래요”. 했다

조금 후에 아빠께선 담배를 피우고 싶어서인지 신문을 들고 방에 들어 갔다 나오시며 담배가 놓여 있던 곳도 한번 보시고 서랍도 열어 보곤 하셨다.

난 얼른 우유를 컵에 따라 갖다 드렸더니

“예경아!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했니?”

하시며 웃으셨지만 조금 쓸쓸해 보였다.

“아빠! 나 아빠한테 할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인데……”

“아빠! 담배 왜 피우시는거예요? 심심해서 피우는거예요? 맛있어서 피우는 거예요?”

아빠는

“넌 여자라서 몰라도 되는 거야, 아빠는 생각하고 싶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할때면 담배를 피워야 생각이 잘나고 다른 사람과 담배를 주고 받으며 이야기를 해야 잘 되는 거란다” 하셨다.

“그래도 건강을 해치는 그런 것을 안하고는 생각이 안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말도 일리는 있는데 습관이 되어서……”.

하시며 우유를 조금 마시셨다. 저녁때, 엄마가 오셨다. 안방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슬쩍 들어보니,

“아이들한테 아빠 감시하라고 시키는 사람이 어디있어. 공산당이야……”

하시며 엄마한테 화를 내시는 것 같았다.

“딸한테까지 망신 안당하시려면 담배를 끊으세요”.

난, “엄마, 화이팅!”하며 문을 열어 큰소리로 말했더니, “에이 모녀가 이제, 아주 공작을 하는구나”, 하시며 담배를 사러 나가시려고 하셨다.

난 얼른 우유를 따라서 갖다 드리며

“아빠,담배”

하였더니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으시며 앉으셨다.

아직 우리 아빠는 담배를 완전히 끊으시지 못하셨지만 고마운 우유가 아빠의 건강을 지켜주며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리라 믿고 있다.

나와 엄마는 오늘도 “아빠 담배”하며 우유컵을 내밀면 우리 아빠 꺾꺾 웃으시며 고마운 우유를 꿀꺽꿀꺽 마신다.

“아빠, 이 해가 가기전에 담배를 꼭 끊으시고 우유를 많이 드세요”.

이가 어서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이나라를 이끌어 가서 선진국건설에 힘써야 할텐데”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회사일을 마치고 돌아오셔서 우유밥에 김치, 김, 계란을 잡수신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 병을 앓으신 적이 없다. 그리곤 가끔씩 외할머니 댁에 나를 데리고가서 우유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 그런데 외할머니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신다. “농산물을 수입하면 우리 농민은 어떻게 먹고 살라고……. 국민들 모두가 사위자네같은 사람이라면 농산물을 수입해도 별 걱정이 없겠는데……”

이렇게 걱정하신다.

아버지는 가끔씩 우리 식구를 보고

“우리가 국산품을 애용한다고 해서 갑자기 나라가 편안해지는게 아니야. 온 국민이 모두 애용해야되는데……”하고 말씀하신다.

우리 나라에 있는 온 가족들이 우리 처럼 우유 가족이 되어 농촌에서 고생하시는 농부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농산품을 애용한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지니 우유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입선

우리집은 우유가족

최 정 운

안강제일국민학교 6학년 1반

“철컹”

누나와 나는 질세라 대문으로 달려간다. 이소리는 우유주머니에 우유를 넣을 때 나는 소리이다. 또 우리가족들이 제일 기다리기도 하는 소리이다. 우리집 우유대장인 나와 누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우유 아주머니를 기다린다. 아침에온 우유는 신선해서 더 맛이 좋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유를 받아서 마시는 모습을 아주머니께서 보시면 언제나 즐거워 하신다. 이렇게 누나와 내가 우유를 마시고 있노라면 아버지께서는 일어나셔서 “이녀석들, 벌써 선수를 쳤구나” 하고 말씀하시면 부엌에서 우유밥을 지으려는 어머니가 웃으신다. 이렇게 우리집의 아침은 시작

된다. 우리집은 십년째 우유를 받아 마시고 있다. 남들이 물리지 않냐고 물어도 우리는 언제나 맛있다고 한다. 농촌에서 고생하시는 아버지께 생각하면 좋은 우리 국산 우유 한 컵 더마셔서 도와드리며 나의 몸도 건강하게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고생하시는 아버지의 수고를 덜어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우유를 마신다. 또 우리 어머니께서는 거리에 외제 우유 가게가 많은데도 꼭 가게에 가서서 우리 우유만 사신다. 언제나 어머니는 나를 보시고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 국민모두가 국산품을 애용한다면 지금 우루과이라운드 때문에 걱정하는 일도 없어질꺼야. 또 우리정운

우유와 우리할머니

양진혜

성남 국민학교 2학년 4반

우리 할머니는 72살이다. 할머니는 시골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사시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우리집에 오신지 며칠이 된다.

나는 외로운 할머니와 빨리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 학교에서는 빵과 우유를 주는데 오늘은 배가 더부룩해서 그냥 가지고 왔다.

“할머니 빵하고 우유 드세요.”

“빵만 먹을께, 난 우유를 먹을 줄 몰라 너나 잘 마시고 키크거라.”

“할머니는! 우유도 못마신다면서 우유를 마시면 키큰다는 것을 어떻게 아세요?”

“텔레비전에서 선전하는것을 보았지”.

“할머닌 왜 우유를 못잡수세요?”

“비위 상하고 이상해”.

“그러면 설탕을 넣어 잡수어 보세요. 괜찮을지도 몰라요”.

나는 3분의 1컵에 설탕 한숟갈을 넣고 저어드렸다. 할머니는 한모금 마시더니 너무 달아서 싫다고 남은 우유를 내게 주셨다.

다음날 할머니 생각이 나서 빵만 먹고 우유는 가지고 왔다.

“감자는 소금을 찍어 먹어야 제 맛이 난다던데 소금을 넣어 볼까?”

“그래 보세요. 할머니”.

나는 반에 반컵에 고은 소금을 약간 넣어 저어드렸다.

“짹짹 조금 괜찮은것 같기도 하고 고소한것 같기도 하고” 하시더니 다 잡수셨다. 나도 소금을 약간 넣어 먹어보니 짹짹 했다. 나는 우유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그냥 먹는것이 더 좋았다.

우리엄마는 내가 우유를 마실때마다 꿀꺽꿀꺽 한꺼번에 너무 빨리 마신다고 걱정하셨다.

다음날은 냉장고에 1시간쯤 넣어두어 차게해서 드렸더니 좀 괜찮다고 하셨다.

할머니는 초코 우유와 바나나 우유는 드신다고 하셨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흰우유만 주기 때문에 걱정이었다.

다음날에는 빵에 우유를 찍어 잡수시도록 했더니 목도 메이지 않고 부드러워서 좋다고 하시며 반컵을 다 드셨다.

이 방법, 저방법을 써서 할머니께서는 우유를 날마다 마시게 되었다.

학교급식인 우유를 할머니와 함께 마시니 할머니와도 정이 들었다.

할머니가 내 가방을 받아 주시며 눈을 우유를 찾으실 생각을 하고 꼭 참고 먹지않고 그냥 가지고 온다.

“할머니 우유”.

“그래 우리 마시자”.

두 컵에 반잔씩 따르시는 할머니 얼굴은 모르는 산수 문제를 풀은 학생같은 표정이었다.

할머니와 나는 우유 친구가 되었다.

맛있게 잡수시는 법을 아시는 안먹으면 배가 고프다고 하시며 이제는 입에 배어서 간식으로 먹어야 기운이 난다고 하셨다.

뒤 늦게 우유맛에 푹 빠지신 우리할머니.

일요일, 공휴일에는 우유를 못먹는다고 맥주병, 소주병을 빼짐없이 모아 오셔서 수퍼에 팔아우유를 사서 잡수신다.

우리 할머니는 72살 답지않게 곱게 늙으셨고 건강하시다.

